

■ 한국은행, 2018년 경제전망

올해 경제성장률 3.0% 유지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 올해 1.6%·내년 2.0% 기준금리 연 1.50% 동결 하반기 인상 가능 불확실한 경제 취업자 수 증가폭 대폭 낮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3%로 유지했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높였으나 고용 개선 지연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낮춰 잡았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발표한 '2018년 경제전망' 자료에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올해 3.0%, 내년은 2.9%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인 올해 1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성장세 지속으로 수출,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6%

0.1%포인트 내렸으나 내년에는 2.0%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에 도달하리라고 내다봤다.

내수 경기 회복, 유가 상승 영향 등으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 예상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3개월 전과 같이 올해와 내년 모두 2.7%로 전망됐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은 1월 2.5%에서 2.9%로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내년 전망도 2.3%에서 2.6%로 올랐다.

반도체 투자 증가세는 기저효과 때문에 둔화하겠지만 석유화학, 통신,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회복할 것이라 예상했다.

고용시장 전망은 다소 약화했다. 한은은 올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1월 전망(30만명)보다 4만명 꺾였다. 지난해에는 32만명이었다.

올해 상반기 21만명, 하반기 30만명(상반기 28만명, 하반기 33만명)보다 모두 하향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해제에도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가 지연된 여파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는 29만명으로 이전 전망을 유지했다. 실업률은 올해 3.8%, 내년 3.7%로 유지됐다.

고용률도 올해와 내년 모두 지난 전망과 같은 61.0%, 61.4%를 제시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 이후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위는 12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30일 6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0.25%p 인상된 기준금리는 1.50%로 유지된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시장의 예상대로였다. 전날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9.0%가 4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을 전망한 응답자는 전체의 11%였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응답자는 없었다.

금통위의 결정으로 당분간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 상황은 당분간 더 이어지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연 1.50-1.75%로 0.25%p 인상하며 한은 기준금리(연 1.50%)를 넘어섰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질 경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 확대 필요”

농촌사회, 다문화·귀농·소득양극화 등 갈등 심각

농촌사회의 사회적 갈등과 배제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포용적 농촌복지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선임연구위원 등이 내놓은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다문화가족, 귀농·귀촌 증가, 소득양극화 심화, 도시와 농촌의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의 차이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일자리의 분배가 기회 부족으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중·소농, 벽지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빈곤계층 등의 소외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범죄 경력자에 대한 포용 수준이 낮고 진보집단과 보수 집단의 이념 갈등, 빈부 갈등, 고령층과 젊은 층 갈등,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 갈등,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의 갈등, 지자체 선거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포용적 농촌복지정책 확대,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강화,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사회통합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박대식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포용은 사회통합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농촌사회 통합을 증진하려면 포용적 농촌복지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주민의 거주지역이나 성별, 농촌주민 유형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사회통합인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미애 기자



농협은행 전남본부, 마케팅 우수직원 현장견학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유해근)는 12일 1분기 사업추진 관내우수 직원 40명의 사기진작과 농심함양을 위해 '농심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테마로 경제사업장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대한민국 고품질 농산물 유통의 메카인 농협유통 양재점과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전국에 공급하는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 전남 423개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친환경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장성 삼계농협 산지유통센터(APC) 등을 방문해 지역농산물의 유통을 체험했다.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에서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구현을위해 농협법 제1조에 기반한 농심마케팅과 손익목표 달성을 통해 농협은행이 한단계 농산물을 전국에 공급하는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 전남 423개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친환경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장성 삼계농협 산지유통센터(APC) 등을 방문해 지역농산물의 유통을 체험했다.

이날 행사에서 산지유통관리자 역량강화 방안과 최저 임금제도 개정으로 인한 APC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계 이해, 자기개발과 행복웃음치료를 위한 유쾌한 강의, 정기총회와 권역별 토론 등으로 진행했다.

산지유통관리자 제도는 농협이 산지유통을 주도할 핵심인력을 선정해 육성·운영하는 제도로 2020년까지 모든 산지농협 APC에 산지유통관리자 1인 이상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속출하계약을 통한 농업인 조직화, /서미애 기자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최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전남광주농협 산지유통관리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농협 산지유통관리자협의회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산지유통 활성화 우리가 책임진다”

전남농협, 산지유통관리자협의회 총회·워크숍 2020년까지 농협 APC 산지유통관리자 배치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최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전남광주농협 산지유통관리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농협 산지유통관리자협의회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지유통관리자가 산지유통 활성화 및 산지조직 경쟁력 강화를 주

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산지유통관리자 역량강화 방안과 최저 임금제도 개정으로 인한 APC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계 이해, 자기개발과 행복웃음치료를 위한 유쾌한 강의, 정기총회와 권역별 토론 등으

로 진행했다.

산지유통관리자 제도는 농협이 산지유통을 주도할 핵심인력을 선정해 육성·운영하는 제도로 2020년까지 모든 산지농협 APC에 산지유통관리자 1인 이상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속출하계약을 통한 농업인 조직화, /서미애 기자

APC·가공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관리, 농산물 품질관리 및 마케팅이주요 업무다.

전남·광주는 산지유통관리자 80명이 산지농협 APC에 배치돼 산지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태선 본부장은 "산지유통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전남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 조기에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오늘 정기총회와 워크숍을 계기로 전남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지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산지유통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재활용폐기물수거비 최고 8배 차이

전아연 광주지부 “수거비 표준화해야”

'분리수거 대란' 사태를 빚은 재활용 폐기물 수거비용이 아파트 단지별로 크게 차이가 나 이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는 12일 "이번 사태 원인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경과 지자체 무관심에 의한 부실 대응도 있지만 일부 수거업체가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수거비용을 인하시키기 위해 횡포를 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재용 전아연 지회장은 "수거업체는 수거비용 인하를 위해 그동안 정상적으로 수거했고 중국 수입금지 품목에도 없는 폐비닐류,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을 수거할 수 없다고 거부한다"며 "입주민

을 불모로 문제를 일으킨 수거업체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거비용은 세대당 월 최소 255원에서 최대 2천80원까지 최고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단지별 가격 차이가 없도록 정부가 실태조사를 하고 표준화된 적정 수거비용을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또 재활용품 배출요령 적극 홍보, 환경분담금 지급으로 수거업체 수익성 보충 등 대책을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미애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 용도 ...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식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일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자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